

이달의 어항 ㉔ - 여수 국동항

# 국내 최대 어선 수용률 자랑

## - 감성돔 손맛에 갯장어 입맛까지 -



2,000여 척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수산현황을 살펴보면 어업인구가 879가구 4,395명, 지방어선 802, 외래어선 하루 최대 50여척으로 갈치, 조기 등을 주요 어종으로 한 생산량이 연 67,108MT에 이른다. 이는 여수반도의 남단에

이다. 다기능 어항이 완성되면 연간 8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과 그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안 중간지점에 자리잡아 남해를 아우르는 입지조건을 갖추었으며, 돌산도, 오동도, 사도, 거문도, 백도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고, 여수시가 2012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국동항은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국동항에 오면 갯장어 요리를 빼놓을 수 없다. 갯장어는 '물다' 라는 뜻의 일본말 '하무'에서 유래되어 하모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수심 20m 이상 깊은 곳에서 서식해 주낙으로 잡아올리기 때문에 자연산만 존재한다. 갯장어는 회를 떠 먹기도 하지만 보통 살 전체에 섬세한 칼집을 내고 팔팔 끓는 육수에 담가 익혀먹는 샤브샤브식 요리를 즐긴다. 이렇게 익힌 살을 가장달달인 소스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탱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터진다.

주변관광지로 여수만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장군도가 볼만하다. 장군도는 해안선이 600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이 섬에는 연산군 시절 수군절도사 이량이 왜군을 퇴치하고 쌓았다는 국내 유일의 해저석성의 흔적이 발굴된 유서 깊은 곳이다. 이와 함께 여수거북선축제, 향일암축제, 향토음식축제 등 주말에 가족과 함께 국동항을 찾았다면 넓게 펼쳐진 항의 전경과 시원한 바닷바람,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 찾아오시는 길

-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여수행 직행 버스 20~30분 간격
- 서광주역, 송정리역 출발 여수행 기차(하루 1회)

“국동항에 오려고 버르고 별러 모처럼 시간을 냈어요. 청정 바다에서 친구들과 담소하며 고기를 잡다보니 묵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유어선에서 내린 낚시꾼들이 팔뚝만한 감성돔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시끌벅적하다. 그에 답하듯 감성돔이 팔짝 뛰다.

이달의 어항, 여수의 자랑 국동항을 찾았다.

한반도 남단 중간지점에 위치한 미항의 도시 여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남해안 중심도시 기능 강화, 21세기형 국제 해양관광, 휴양레저 도시건설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며 세계로 웅비하는 도시. 이곳의 남쪽 바닷바람을 마시며 광활하게 펼쳐진 국동항은 세계화로 뻗어가는 여수의 발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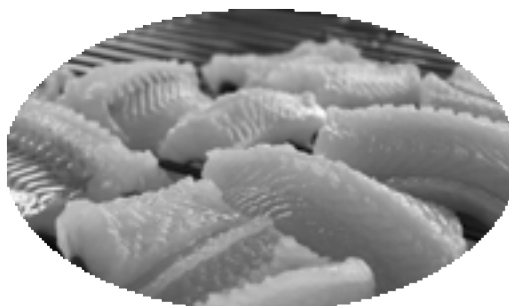
국동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것은 1979년. 시설현황은 1992년 기본시설을 완공하고 1996년 2단계 정비계획을 수립, 방파제 계획 220m 대비 하부공 107m 완공, 물량장 계획 2,692m 대비 상부공 164m만을 남겨둔 상태. 또한 돌제 490m, 파제제 250m, 도로 840m로 2004년 까지 완공되었다.

국동항은 앞바다에 위치한 다수의 섬 때문에 정온을 확보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어 정온수면적이 662,000㎡에 이른다. 이는 30톤급 어선을

위치하여 다양한 어종 및 양식장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근해에 거문도 어장이 위치하여 최적의 어업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수산물 위판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어획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활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국동항은 유어선 낚시꾼을 비롯한 관광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시점에서 최근 다기능어항으로 선정돼 개발된다는 정부방침은 이곳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국동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주관해 2006년 까지 설계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 2009년 까지 5개 년사업으로 추진 된다. 이 사업은 국비 50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가공·유통 시설은 물론 여객선터미널, 요트경기장, 콘도 등 해양레크레이션 종합단지를 건립할 계획